

'잡곡으로 당뇨 예방하세요'

농진청, 귀리·수수·손가락조·팥·기장 등 잡곡류 배합 항당뇨 활성 높은 최적 비율 설정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자체 개발한 다양한 잡곡류를 배합해 항당뇨 활성이 높은 최적 비율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잡곡류는 폴리페놀 등 기능 성분이 다양하게 함유돼 있고 항산화 활성 등 생리활성이 우수해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혼합 곡류와 잡곡 가공제품은 작목 수 혼합 비율에 따른 기능성을 고려하기보다 주로 관능적 특성에 따라 제조된다.

농촌진흥청은 한양대학교, 충북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항당뇨 활성 우수 작목과 품종을 선정하고, 최적의 혼합 비율을 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국내에서 육성한 귀리(대양), 수수

(소담찰), 손가락조(핑거호), 팥(아라리), 기장(금실찰)을 30 : 30 : 15 : 15 : 10으로 혼합(혼합 잡곡 조성물)했을 때 당뇨 관련 효소 활성을 억제, 간세포 포도당 흡수를 증가, 공복혈당 및 경구포도당부하 수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이 작목별 α-glucosidase 저해활성, 세포 또는 동물 실험을 통해 다양한 비율의 잡곡 혼합 조성물을 제조해 α-glucosidase 저해활성을 검증한 결과, 앞서 말한 다섯 가지 혼합 잡곡의 추출물이 54.5%로 가장 높았다.

간세포를 이용한 잡곡 혼합 조성물의 포도당 흡수율은 47.2%로 측정돼 양성대조군인 metformin보다 2.6배 높은 값을 보였다.

당뇨를 유도한 쥐에게 잡곡 혼합 조성물 추출물을 6주간 섭취시켰을

때 공복혈당은 22.5% 감소했고 경구포도당부하 수치는 15.5% 감소했다.

다섯 가지 잡곡 혼합 조성물은 인슐린의 기능을 도와 대사질환 조절과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진 아연 함량이 1.6mg/100g으로 높았다. 또한 생리활성과 연관된 총 폴리페놀 함량은 추출물 1g당 5.4mg으로 다른 잡곡 혼합 조성물에 비해 높은 함량을 보였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수확후 이용과 김진숙 과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산 잡곡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대학교 이준수 교수는 "세포 및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된 항당뇨 활성 우수 잡곡 조성물을 적용해 시리얼 바, 선식, 과자 등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김윤상 기자



농장동물 복지 국내외 현안 공유

24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국내외 현안을 공유하고,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중소기업 성장시대'의 대전환

이재명 대선 후보, 중소기업중앙회 찾아 비전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4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를 가졌다.

이 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롯해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 정성호 선대위 총괄본부장, 이학영 소상공인자영업인생본부장, 강훈식 정무조정실장, 김경민 소상공인자영업인생본부장, 한준호 수행실장, 이소영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학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정운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봉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을 비롯한 업

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벤처, 스타트업 그리고 취업을 앞둔 청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 중소기업 성장시대'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비전을 발표했다.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허합적용 배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 등 주요 현안 건의가 이어졌다.

신익철 한국재생유지공협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국내 사업확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협업종 제도와 중소기업

업자간 경쟁제품구매제도 등 사업영역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식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권향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확실적인 주업시간 등 지나친 노동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 탄소 중립 등 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지만, 개별 중소기업이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임길재 충북중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약할 때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개선하고, 가입자에게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디지털 경제시대의 핵심인 SW인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 수요에 맞는 대학 교육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재명 후보의 1호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 정책은 소수에 집중된 지원과 기호를 공정하게 배분해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중소기업 정책공약이 차기정부의 핵심정책과제로 이어져 '중소기업 성장시대'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스마트 수변도시' 가 가진 매력은?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설명회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병재, 이하 '공사')는 24일 서울 IS공신빌딩에서 민간투자자를 대상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부동산 건설사, 시행사 금융투자사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새만금의 투자환경 및 인센티브, 수변도시 홍보영상 상영 및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기업의 확실한 투자처로서 새만금 수변도시가 가진 매력을 설명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새만금의 개발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공공주도로 추진하는 핵심 선도사업으로, 공사는 수변도시를 쾌적한 수변공간에 최첨단 스마트도시 기능을 도입한 명품 도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 복합개발단지 내 면적 약 66㎢, 인구 2만5,000명 규모의 자족기능을 갖추게 될 수변도시에는 ▲새만금의 풍부한 물을 활용한 수변도시 ▲스마트 기술로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 도시 ▲쾌적한 주거환경과 에너지자립 친환경탄소중립도시의 3가지 컨셉이 반영된 자연포용·기술융합·사람중심 자족형 도시로 계획됐다.

공사는 수변도시 내 공공·주거·글로벌 교육기능이 포함된 선도사업구역을 시작으로 민간투자자들의 성공적 유치를 통해 수변도시 활성화와 후속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강병재 사장은 "이번 사업설명회는 새만금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할 스마트 수변도시의 특징과 장점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부동산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경진원 '참여청년 워크숍' 개최

전북도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용, 이하 경진원)은 전북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3일~24일 이틀동안 '참여청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북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청년근로자들의 직장내 스트레스 해소 및 성격검사 등의 힐링체험프로그램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참여청년들의 정보공유 등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진 유익한 시간이었다.

경진원 이현용 원장은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누적 극복과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따뜻한 겨울나기

전주농협, '사랑나눔 김장축제'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이 부녀회 연합회들과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전미동 농기계수리센터에서 '2021 사랑나눔 김장축제'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추운 날씨에도 부녀회 연합회(회장 임정자)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추 2,000포기의 김치를 담갔다. 전주농협은 오는 28일까지 전주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마을 영농회 어려운 시설탄재 등 소외된 계층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임정자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사랑의 김치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으로 나눔 문화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인규 조합장은 "장기화 가운데, 배추 2,000포기의 김치를 담갔다. 전주농협은 오는 28일까지 전주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마을 영농회 어려운 시설탄재 등 소외된 계층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임정자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김윤상 기자



지적측량 성과검사 체계 온라인 전환

LX, 비대면 환경에 맞춰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 맞춰 지적측량 성과검사 체계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

LX는 비대면 서비스 혁신과 업무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온택트 지적측량 성과검사 체계를 도입한다.

기존 성과검사는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자체에 오프라인으로 측량결과도와 성과도를 종이로 출력해 전달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LX는 지적측량 바로처리시스템과 지자체 부동산종합공무시스템을 연계, 성과검사를 온택트로 처리해 성과도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LX는 이를 통해 비용절감과 업무 효율성 증대, 처리기간 단축 등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또한 온택트 체계 도입으로 성과검사 시 결과도 작성에 따른 탄소가 연간 144t이 저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축구장 24개(약 18ha), 30년생 편백나무 2만1,60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동일한 규모다.

김용하 지적사업본부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행정에서도 비대면·디지털 혁신이 중요시 되고 있다"며 "원스톱 성과 검사로 국민들이 신속하게 측량성과를 발급받는 동시에 탄소 중립 사회 건설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 돌봄기업' 아이 중기 관련대회 '씩쓸이'

전북도의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육성 시스템(체계)을 타고 도내 한 돌봄기업이 든든한 지원 속에 관련 분야를 휩쓸고 있다. 익산에 위치한 (주)아이(대표 성영규) 이야기다.

반려동물 도야기 분야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는 (주)아이은 산개별 핸즈프리 도야기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 2020년 전북도 돌봄기업으로 선정되며, 도의 지원을 통해 올해 많은 성과를 냈다.

(주)아이은 '돌봄기업 육성사업' 지원을 받아 2020년 미국 반려동물 전시회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해외시장을 개척했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북도가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온 '우수중소기업인상(우수제품개발분야)'에 선정돼 경영개선보조금 3,000만원을 전북도 스타소상공인 공개오디션에서 대상을 수상해 상금 2,5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전북도 디자인센터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온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제품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 '2021 우수디자인(Good Design)'과 '글로벌 생활 명품'에 선정됐다. /유호성 기자



서부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개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장원)은 지난 23일,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청에서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개략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 후 지정·관리한다. 시·군·구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조사지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고시하게 된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사태 예방 사업을 비롯해 주민비상연락망 구축과 대피장소 지정, 위기경보 긴급재난 문자 송출 등 주민대피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 및 산사태 현장에 당도한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소 발견 즉시 응급조치 등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 서부지역 관내(광주, 전북, 전남, 경남, 서부)에는 2012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총 686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이번에 31개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기존 취약지역 중 사망사건 실행 등으로 인해 위험요소가 해소된 23개소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해 취약지역을 해제했다. /남원=김기주 기자